

〈성현공숙렬기〉 속 남장 여성과 여성의 관계*

전기화**

〈차 례〉

1. 서론
2.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남장의 양상
3. 여성들의 관계 및 여성 독자의 문제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소설 속 남장 화소를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남장 화소의 흥미성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현공숙렬기〉에 남장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 맺는 관계의 다양한 국면이 흥미롭게 형상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그 의미와 서사 내외적 효과 등을 특히 여성 독자의 수용과 관련하여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성현공숙렬기〉에서는 여성인물의 남장을 비롯한 탈규범적 행위가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음이 강조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남장을 하게 된 여성을 포용력 있게 바라보는 다른 여성의 시선이 제시되고 그녀들 간의 깊은 유대감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소설은 남장을 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도덕적 단죄를 유예하고 독자가 인물과 보다 긴밀하게 연루되게끔 이끈다.

이렇듯 탈규범적 행위와 관련하여 여성 주동인물에게 덧씌워질 수 있는 혐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그녀 주변의 여성 시비군의 행위성이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성현공숙렬기〉에 남장을 하는 여성인물이 다수 등장하며 이들의 관계성이 다각적으로 조명된다는 특징과도 연관된다. 이로써 독자들은 윤리적 부담 없이

* 논문의 부족한 지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조연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향유하면서도, 여성 시비군의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좇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장이라는 비밀을 둘러싸고 여성인물들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유희적으로 그려내는 삽화들을 통해 여성의 남장 문제가 지니는 윤리적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한다.

이 중 비구니와 관련된 삽화에서는 남장 여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성을 욕망하는 여성과 여성에 의해 욕망 당하는 여성이 그려지고 있다. 이 삽화는 이성애적 관계에 바탕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승인될 수 없는 성애적 감성을 그려내면서도,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소동임을 폭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이는 독자들의 수용방식, 이를테면 인물과의 동일시와 대상화를 오기는 독서의 경험에 관한 해석 가능성이 열어두는바, 이렇듯 다양하고도 균열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야말로 해당 삽화가 진정 ‘흥미로운’ 이유일 것이다.

주제어 고전소설의 남장, 성현공숙렬기, 유희적 활용, 여성 독자, 욕망, 여성들의 관계

1. 서론

본 연구는 고전소설 속 남장 화소를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장 여성인물과 다른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가 흥미롭게 형상화되는 장면을 독자 수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남장 화소의 흥미성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남장에 관해서는 대체로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여성의 남장이라는 설정이 여성의식의 표출인가 혹은 여성혐오와 남성 선망의 표출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여성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상이한 입장의 결과이기도 했다.¹⁾ 이를 둘러싼 논의를 종합적으

1) 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방한립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1~513쪽. 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

로 아우르고 여성영웅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규명하는 가운데, 여성영웅소설에서 여러 갈래의 페미니즘적 사유를 도출하는 총론 격의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²⁾

한편 여성인물의 남장 설정을 이념적 측면보다는 오락성과 흥미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연구의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글장편소설 등의 장르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남장 화소의 의의를 독자수용의 측면에서 규명한다. 이를테면 남장 여성을 애정서사의 유용한 장치로서 분석하며 여성 독자층의 애정욕망을 적극적으로 읽어낸 연구³⁾와 더불어, 다양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복장전환 화소의 문학적 기능과 독자에게 미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⁴⁾ 이에 더하여 고전소설 속 남성인물이 남장 여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장면들을 ‘동성애적 감성’으로 개념화하며 그 소설사적 의의를 논한 연구⁵⁾ 및 남장 화소에는 자유로운 애정 표현과 연애의 감성을 향한 당대 향유층의 보편적 욕망이 자리한다는 논의⁶⁾ 등도 주목된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남장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독자 수용의 측면에서 발휘하는 효과, 즉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연애적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안전한 수준에서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소설

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01~338쪽. 한편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의식을 논하는 것이 그 장르 성격상 부적절함을 지적한 논의로는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참고.

2)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56~193쪽.

3) 이정하, 「〈하진양문록〉의 애정갈등과 여성독자의 자기검열」,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53~383쪽.

4) 최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1~86쪽.

5)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91~121쪽.

6) 이지하, 「조선 후기 상층가문의 성(性)문화와 ‘연애’의 발견」, 『반교어문연구』 52, 반교어문학회, 2019, 167~199쪽.

의 오락성을 제고한다는 점 등이 밝혀질 수 있었다.

본고는 이렇듯 독자 수용의 측면에서 남장 화소의 흥미성에 주목한 후자의 흐름을 계승하여, 고전소설에서 남장 여성이 형상화되고 서사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 내외적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남장을 한 여성인물과 남성인물 간의 관계, 즉 부부관계로 귀결되는 남녀의 관계에 주목해 왔으며 이에 관한 여성 독자의 수용 역시 이성애적 애정 욕망을 전제한 위에서 추론해 왔다. 그러나 고전소설에는 남장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의 국면들 또한 주요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독자의 욕망을 이성애에 기반한 로맨스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다 다양한 수용방식의 가능성을 탐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왕에도 남장 여성과 다른 여성 간의 관계에 관한 주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논의란 대개 남장 여성이 다른 여성과 혼인하는 여여결연(女女結緣)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었다.⁷⁾ 이러한 여여결연이란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며, 형태로는 동성혼이되 실질적으로는 동성애에 관한 금기를 보여준다고도 해석되었다. 다만 결연의 형태로 묶이지 않는 남장 여성과 여성들 간의 관계 양상을 두루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서사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아 크게 조명되지 못하는 주변부적 관계성에 갖는 이채로운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여여결연의 형태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여성들 간

7) 특히 <방한림전>의 경우 방관주, 영혜빙, 유모 등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성을 해명하는 것이 연구의 쟁점이 될 만큼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여여결연의 양상을 살핀 연구로는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쪽. ; 김민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연구 :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김회경전>,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25, 1~121쪽 참고.

의 관계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한글장편소설 〈성현공숙렬기〉는 남장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 맺는 관계성을 흥미롭게 담아낸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 소설에는 여성의 남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면, 이를테면 여성인물의 남장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인물과 이를 모르는 여성인물들의 반응 등이 흥미롭게 형상화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서술 방식과 효과 등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또한 주동인물이 남장을 수행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서사가 자세하게 서술되는 데다가, 그녀의 주변에 다양한 남장 여성들이 존재하며 이들 간의 관계성이 서사 내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기존에 〈성현공숙렬기〉에 관해서는 서사 구조 및 인물 형상 등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제출되었으며,⁸⁾ 그중 여성인물들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축적되었다.⁹⁾ 다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본 연구를 통해 〈성현공숙렬기〉의 문학적 특징이 새로이 조명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¹⁰⁾

8) 대표적으로 최길용,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갈등구조」,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1~541쪽.;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繼後葛藤) 의미 -〈성현공숙렬기(聖賢公淑烈記)〉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187~218쪽.; 김문희, 「〈성현공숙렬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33~268쪽.; 강우규, 「〈성현공숙렬기〉의 약행 서사 고찰」, 『국제어문』 96, 국제어문학회, 2023, 41~67쪽.

9) 대표적으로 중심가문의 여성인물과 관련하여서는 김중철, 「성현공숙렬기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한국문화』 1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111~133쪽.;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8~34쪽. 여성시비군에 관해서는 김민정,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내·외부 조력자로서의 시비(侍婢) - 열영, 상운, 매송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239~269쪽.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본을 대상으로 삼는다.

2.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남장의 양상

<성현공숙렬기>에는 남장을 하는 다양한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희린과 거의 동등한 주인공”¹¹⁾이라고 평가될 만큼 서사적 비중이 큰 주동인물 주소저도 포함되어 있다. 임희린의 부인인 주소저는 여부인 모자와 반관옥, 한왕 등의 음모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임부에서 출거되고 유배형에 처해지며 이후에는 습격과 방화 사건까지 겪는다.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세간에서는 주소저가 죽은 줄 알지만, 이후 서사에서는 주소저가 태허법사의 도움으로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가 활인암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곳에서 비서(祕書)를 익히고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된 주소저는 남장을 한 채 세상에 나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남편 임희린을 살리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소저의 서사는, 태허법사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여성수난담 서사에서 여성영웅의 서사로 전환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다만 전형적인 여성영웅소설과 달리, 주소저는 혼인과 출산까지 경험한 이후에야 남복을 개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소저의 곁에는 남복을 개착한 다수의 여성들이 존재하며, 주소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이들의 도움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장 화소를 중심으로 주소저의 서사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남장과 관련하여 여성들 간의 관계가 흥미롭게 그려지는 대목은 선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단계는 주소저가 활인암에 이르러 남장을 하고 생활하기까지의 서사이다. 해당 부분에서는 주소저의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적 행위가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님이 거듭하여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적인

11) 김중철, 앞의 글, 123쪽. 주소저는 숙렬비로 봉해지기에 연구에 따라 ‘주숙렬’로 호명하기도 한다.

다. 이를테면 화염에 휩싸인 주소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태허법사가 자신과 함께 화를 피하자고 제안할 때에도 주소저는 불에 탄 재가 될지언정 당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이에 태허법사는 설득을 포기한 채 도술을 부려 그녀를 이동시켜 버린다. 활인암에 이른 후 주소저가 남장을 하게 되는 것 역시 태허법사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다. 주소저는 자신을 사지로 내몬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거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에 머물면서 여자의 복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남장을 하게 될 따름이다.¹²⁾

그런데 이와 같은 태허법사의 남장 권유에 앞서, 주소저가 남장을 한 채 활인암에서 생활하던 한소저를 만나는 설정이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된다. 주소저가 한소저와 맺게 되는 인연은, 이후의 서사에서 주소저가 태허법사의 남장 제안을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의 니르샤 맛당이 불전의 네비호실 거시로더 심신 공뇌하시리니 니제 평안이 쉬시고 동용이 스들을 보쇼셔.” 인하여 소리하여 왈, “방중 수지아 외간 명뵈 니르러 계시니 슈지는 외당으로 나그라.” 말노조차 김장을 열고 일위 쇼년이 오건혁디로 흙신공슈호거늘 쇼져 놀나 혼백이 구쇼의 훗터지는듯 진퇴 유곡이라. 이 본디 산하를 지랑호는 총명이라 인식을 불변호고 공슈저립호니 대시 크게 웃고 왈, “숙널현비는 진실노 신인이라. 빈도의 적은 희롱이 엇지 발 뵈리오 저 슈지는 부인의 지심지기로 평상을 동고호실 비니 향니교언이나 베프

12) 관련하여 태허법사가 천문지리와 육도삼략, 질병백약 등이 담긴 비서를 공부하기를 권유할 때에도 주소저는 규중(閩中) 여자가 그것을 알아 무었하겠나며 거절하지만 태허법사가 재차 권하자 이에 따른다. 즉, 주소저가 세상에 나가 변란을 진압하고 임회권을 살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역시 태허법사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쇼셔.” 그 쇼년이 비로써 나아와 쇼저를 향하여 네를 베를거늘 쇼제 쇼흔 답네
 헝미 대스 왈, “이 쇼저는 스절통신 한경의 손네시라. 부피 조물헝고 몸이 숙당
 의 의지헝엇더니 각포의 욕이 급헝미 쇼제 비록 무주공물이나 종신대스로뻬 누
 슈흔 더 니라미 가석헝지라. 고로 빈되 구헝여 이에 머므시니 스듬이 빈폐헝든
 업스오나 규녀의 처시 어렵습기 유복을 환착헝니 그 빈고헝 정스는 부인의셔
 더헝시니이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태허법사는 활인암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풀고
 안심하게 된 주소저를 한 방으로 이끌며, 방 안에 있던 남자를 부르고 밖으
 로 나오라 명한다. 외간 남자와 대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주소
 저가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자, 태허법사는 주소저의 담대함을 칭송하고 자
 신이 주소저를 희롱한 것임을 밝히며 남장한 여성 한소저를 소개한다. 이
 후의 서사에서 주소저는 피차 여자의 몸으로서 화를 피하는 가운데 규혼을
 어겼으니 형제의 의를 맺자고 제안하며, 서술자는 이들의 정이 골육과 다
 림이 없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 주소저가 외간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한 순간 느낀 당혹감과 경계심은, 상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남장을 한 채 생활하던 여성임을 알게 되자 순식간에 해소되며 상대에 대
 한 친근감과 연민, 동질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성현공숙렬기>가 남장을 다루는 이중적인 방식이 잘
 드러난다. 태허법사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는바, 사절충신의 후예로되 일찍
 부모를 잃은 한소저가 남장을 한 채 활인암에 머물게 된 데에는 절절하고
 도 안쓰러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연이란 태허법사가 주
 소저를 놀리는 희롱으로써 한 차례 매개되고 있다.¹⁴⁾ 요컨대 여성인물이

13) <성현공숙렬기> 12권, 44-46면.

14) 이러한 사연이 한소저의 입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태허법사를 통해 전달됨으
 로써 간접화되고 있다는 점, 이후 주소저 역시 태허법사의 제안으로 남장을 시작한다
 는 점은 주목된다. 이렇듯 태허법사는 사대부 계층의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활인암에

남장을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남장이라는 비례(非禮)적 행위를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남장이라는 소재 자체를 유희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주소저가 활인암을 떠나 정체를 감추고 대원수로서 전장에 나서 반란을 진압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서사이다.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서는 이러한 과정 전반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것이자 주소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천명에 따르는 것임이 거듭 강조된다. 이를테면 활인암에서 내려와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된 주소저는 피를 토하고 혼절하며 자결의 의사를 비치는 등 심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태허법사가 건네준 보탁을 열어보고,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 반란군을 토벌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에 주소저가 도복을 입으며 눈물을 흘리자 주변인들은 그 눈물이 집안에 닥친 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하지만, 기실 주소저는 남자 행세를 하여 ‘인륜에서 벗어남’을 한스럽게 여겨 눈물을 흘리는 것임이 서술자에 의해 제시된다.

이렇듯 주소저가 마지못해 남장을 한 채 세상에 나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설정은 이 인물을 다소간 수동적으로 보이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규범 이탈적 행위의 부득이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소저에게 온전히 묻기 어렵게끔 만들기도 한다. 이는 곧 부덕으로부터 이탈한 여성이 가문 안으로 무사 귀환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 전반을 정당화해주는 일종의 서사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단계의 서사에서는 주소저와 함께 활인암을 떠나온 여성들 간의 관계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진세(塵世)로 내려가는 주소저의 곁에는 그녀의 시비인 열영 외에도, 주소저와 형제의 의를 맺은 한소저와 그녀의 시비인 춘협, 태허법사가 주소저에게 내려준 상운과 매송 등이 남장을 한 채

머물게 되는 핵심적인 계기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깊어져야 할 윤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행한다. 이들은 함께 산동으로 향하던 중 주소저가 자신의 친정과 시가에 일어난 환란을 알게 되면서 두 무리로 갈라져 주소저 일행만이 경사로 향하게 된다. 이후 황제로부터 대원수의 직위를 임명받은 주소저가 왕각의 반란을 진압하고 임희린을 살려내는 과정에서는 주소저의 시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의 서사는 주소저의 영웅적 활약이 극대화되는 부분이지만, 그 활약이 주소저 개인의 비범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주변의 여성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듯 남장을 한 채 세상에 나선 주소저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 서사이지만, 실제 소설에서는 다소 돌출적인 삽화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활인암을 막 떠나온 주소저 일행이 인가를 찾다가 비구니들의 사찰에 머물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들 남장 여성들 간의 관계성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쇼계 시이불건하니 니괴 즈뫼 한혀여 녀영 등을 어침혀여 힐난혀며 어린드시
 낭 쇼저를 보아 도라갈 뜻이 업거늘 미송이 짐긔 금구를 포셜혀미 낭 쇼계 당건
 과 옷술 벗고 취침코즈 하니 니괴 춤지 못혀여 눈물을 흘니며 쪼러 고왈, “빈도
 등이 출가 십여 지의 정심을 닷가 어즈러운 일이 업더니 금일 낭 상공 위풍을
 보미 곱혀 일야 측실을 피실진디 영화로오미 경과를 어드미의셔 더힐지라. 즈비
 흐시를 바라나이다.” 한쇼계 광슈를 드러 츄순혀고 낭낭이 우어 왈, “나는 본디
 풍치 미물혀고 몸의 벼친 병이 잇거니와 저 상공은 풍치 호화혀신지라 여등이
 인결혀여 보라.” 쥬쇼계 쥬풍를 흘녀 한쇼저를 보며 정식을 니라디, “여등이 임
 의 부모 유체를 훼손혀고 부처의 제지 되미 산문 청정혀 형실을 닷그미 울켜늘
 남즈를 보고 니러뫼 음욕을 발혀여 히연혀 거져 여츄하니 스품이 금슈와 다른
 른 녀의를 알미어늘 흐믈며 슈도혀는 니고의 형실이 창녀도곤 더으니 내 남즈
 의 몸이나 도로혀 여등을 위혀여 붓그리노라. 연이나 개과천션은 성인의 아름다

이 녀이시는 비니 모로미 형실을 곳쳐 드시 그러지 말노.” 언파의 의연단좌하니
 엄숙히미 튜턴명월이 서리를 썩여는 듯흔지라. 니괴 황공무류히여 사죄하고 물
 너가니 한쇼계 그 기괴히를 박쇼힌디 쥬쇼계 탄왈, “나는 한심히물 니괴지 못하
 느니 우리 낫빰치 결박기로 산중 슈도인의 형실을 상헌오니 무슴 우음이 나리
 오.” 한쇼계 쇼왈, “세상의 슬픈 스텀이 홀노 한즈연 일인이로디 그 거동을 당하
 여는 불각절도해도쇼이다.” 널영 등이 쏘한 웃더라.¹⁵⁾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주소저 일행의 방을 찾아온 주지 비구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사정을 읊소하는바, 그녀들이 십여 년의 수행 기
 간을 거쳤음에도 오늘 두 상공의 풍채에 반하여 그간의 수행을 뒤로하고
 차라리 두 상공의 측실(側室)이 되기를 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소저가
 웃으며 자신은 외모도 모자라고 몸에 병도 있으니 ‘저 상공’(주소저)에게
 애걸해 보라며 능청을 부리자, 주소저는 정색하며 비구니를 꾸짖고 개과천
 선할 것을 훈계한다. 이에 비구니가 황공해하며 물러가고, 한소저 등이 크
 게 웃으면서 상황이 마무리된다.

이는 앞선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본 주소저와 한소저의 만남 장면에 비
 해서도 더욱 극적으로 여성의 남장을 유희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특히 한
 소저가 자신은 한발 물러서면서 너스레를 떨고 비구니를 부추기며 주소저
 를 놀리는 장면은, 당사자의 내적 고뇌를 야기하거나 주변 인물과의 윤리
 적 갈등으로 비화되곤 하는 여성의 남장 문제를, 남장을 한 여성 당사자들
 간에 한바탕의 웃음거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서사적 차원
 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익숙한 공간을 떠난 주소저 일행이 한결 긴장감
 을 느그러뜨리는 계기이자, 주소저 일행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서 역할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일행 내부의 인물들만이 그들이 모두
 남장을 한 여성이라는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외부와의

15) <성현공숙렬기> 12권, 58-61면.

단절감은 강화되고 그 내부의 비밀스러운 친밀감과 결속력은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추후 주소저와 그녀의 시비들이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소저의 비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행동하는 지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주소저가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시 임부로 돌아가기까지의 서사이다. 주소저는 왕각의 반란을 진압하고 임희린을 살려낸 뒤에는, ‘윤리를 버리고 세상을 하직’할 것을 결심하며 종적을 감춘다. 이는 주소저가 활인암에서 한소저를 만나 그녀를 임희린에게 보내고 자신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뜻을 품거나, 남자 행세를 하며 세상에 나서는 것이 곧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인식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에서 거듭 예고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여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주소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황제의 앞에 나서 여부인을 사해줄 것을 청하게 된다. 황제는 주소저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황녀로 봉하기도 하지만, 주소저는 죽고자 하는 뜻을 풀지 않는다. 친정에 머물던 주소저는 임희린의 강압적 설득으로 임부로 돌아오지만 마음을 풀지 못하여 크게 아프고, 임희린의 지극한 돌봄과 그 숙연한 행동거지 앞에서 끝내 피세(避世)의 뜻을 포기하고 임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이 단계에서는 주소저의 남장이 해제되는 만큼, 남장 그 자체가 흥미롭게 서사화된다고보다는 남장이라는 비규범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주소저에게 미치는 사후적인 영향이 주요하게 그려진다. 특히 임희린이 주소저의 과거사를 거론하며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리려 하거나, 주소저가 임희린의 발언에 애달파 죽고자 마음먹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며 임희린이 ‘여자됨의 자닝함’을 깨닫는 모습 등이 자세하게 그려지는 가운데, 소설의 서술적 초점은 부부관계와 그 갈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간 해소된 이후에는, 주소저와 더불어 남장을 했던 여성들에 관한 서

사적 처분이 그려지기도 한다. 주소저의 굳은 의지로 한소저가 임희린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한편, 열영과 상운, 매송 등 주소저의 시비 들은 남성과의 혼인을 죽기로 거부하여 임희린도 결국 이들을 내버려두게 된다. 이로써 주소저와 마찬가지로 남장의 경험을 지닐 뿐 아니라 주소저의 남장 시절을 함께하며 그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여성들이 모두 주소저의 곁에 모여 살아가게 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3. 여성들의 관계 및 여성 독자의 문제

앞선 장에서는 주소저의 서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피며 <성현공숙렬기>가 여성인물의 남장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였던바, 이로부터 도출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장으로 대표되는 여성인물의 탈규범적 행위가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음이 강조된다. 둘째, 주동인물 외에도 다양한 남장 여성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간의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그려진다. 셋째, 남장을 둘러싸고 여성인물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유희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이때 남장 여성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 웃음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어서는 이러한 특징이 과연 한글장편소설의 주 독자층인 상층 여성 독자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며 그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남장으로 대표되는 여성인물의 일탈적 행위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는 서술적 특징은 서사의 안팎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서술은 주소저는 물론 한소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주소저의 남장을 마주하기에 앞서, 기구한 사연으로 남장을 한 채 활인암에 기거하던 한소저와 조우한

‘주소저의 반응’을 먼저 마주하게 된다. 이때 주소저는 한소저와 냉랭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의 부득이함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녀의 삶을 위로한다. 이는 이후의 서사에서 주소저가 남장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개연적인 계기로서 기능하는 한편, <성현공숙렬기>가 남장 여성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특징과도 연관된다. 나아가 이 장면은 독자들이 남장 여성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장을 하게 된 여성을 포용력 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을, 한소저를 향한 주소저의 시선으로써 서사 내에 미리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장의 부득이함에 대한 강조는, 여성인물의 규범 이탈적 행위에 관한 독자들의 거부감을 낮추고 여성인물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게끔 하는 장치로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도 불가피하게 규방 밖을 나선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되는 설정이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이들은 남복을 벗고 여성의 삶으로 돌아온 뒤에도 스스로의 행적에 관한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습 등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인물이 남자로서 행세하였던 행적이 부부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¹⁶⁾ <성현공숙렬기>에서 주소저가 남장을 종료한 이후에도 한사코 인륜을 저버리겠다는 뜻을 고집하고 이로 인해 임희린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의 남장이란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행해졌든 일정한 윤리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적 행위로서 인식되고 재현되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주소저가 남장을 시작하고 종료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이 매 단계마다 일정한 서술을 할애하여 그 상황의 부득이함을 거듭

16) 최어진, 앞의 글, 37-44쪽.

강조하는 것은 주소저를 방어하는 근거로서 작동하는 한편, ‘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들로 점철된 주소저의 행적과 그로 인해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내면을 설명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이로써 주소저가 겪은 저간의 사정을 모두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인물에 대한 선부른 도덕적 단죄를 유예하게끔 하며 인물과 긴밀하게 연루되게끔 이끄는 것이다. 이렇듯 불가피하게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남장을 하고 마지못해 영웅적 행위에 임하되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가문으로 복귀하여 규범적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소저의 서사는, 한글장편소설의 주 독자층인 상층 여성들의 윤리적 감수성과 미적 취향에도 상당히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⁷⁾

이와 같은 주소저의 형상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충분히 영웅답지 못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주소저가 ‘어머니의 명이 아니면 당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등 일평생 유교적 부덕에 충실한 규중의 여인으로 살아온 인물임을 고려하면, 소설이 그려내는 주소저의 성격은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으로 형상화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주소저는 대원수로 출전한 상황에서조차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기묘비계(奇謀秘計)를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내외법을 준수하려 한다. 이러한 주소저의 곁에서 열영과 매송, 상운 등이 주소저의 손과 발이 되어 핵심적인 매개를 제공함으로써, 전쟁터라는 다분히 남성적인 공간에서조차 주소저는 다른 남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상운은 여복을 개착하고 금화공주의 시비가 되어 임희린을 보살피며, 이후에는 다시 용복을 입고 성문을 열어 군대를 맞아

17) 이러한 주소저는 한글장편소설의 전형적 여성영웅상으로 자리 잡게되는 ‘체제순응형 여성영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길연, 「국문장편소설과 소설사적 전변 -단편 영웅소설과의 교섭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39~186쪽.

18) 김민정, 앞의 글, 263-264쪽.

들이는 등 큰 활약을 보여준다. 즉, 왕각의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생포된 임희린을 살려내야 하는 주소저의 임무의 큰 부분을 대리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주소저에게 덧씌워질 수 있는 비례의 혐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여성 시비군의 행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영웅의 행위성을 주변의 여성인물들에게로 분산하여 배분함으로써, 주소저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만 규범을 일탈하는 한편 그녀 주변의 다양한 여성인물들이 얽혀드는 풍부한 서사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독자들은 큰 윤리적 부담을 지지 않고 주소저를 중심으로 서사를 향유하면서도 상운과 같은 인물의 펼치는 과감한 활약 또한 흥미진진하게 좇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성현공숙열기>에 주동인물인 주소저 외에도 남장을 하는 다수의 여성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곧 이 소설이 이러한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징과도 관련된다.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바 활인암에서 태허법사가 주소저를 놀리기 위해 한소저를 남자라고 속이는 장면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여성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희롱이기에 안전하게 유희적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실 태허법사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무량한 법력을 지닌 법사로서 이미 백여 세의 나이에 이르러 다스려 탈젠더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출가하였음이 명시되며, 주소저와 한소저 모두 사대부 계층의 출신이되 태허법사의 구출로 활인암에 이른 여성들이다. 상운과 매송 등도 남장을 한 채 생활하는 데에서 드러나듯, 활인암은 여성들이 기거하되 여성이라는 젠더와 그에 결부된 성적 규범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그려진다.¹⁹⁾

19) 이를테면 주소저가 상운과 매송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들은 무예에 정통한 ‘여중호걸’로 등장한다. 주소저가 ‘그 소임 아님’을 경계하자, 상운은 자신들이 남녀 모두 무예를 숭상하는 지역 출신이라 그것을 소임으로 삼았으나 이제 주인을 모심에 ‘문방서안을 받을것다’며 웃으며 답한다. 간략한 대목이기는 하나 이는 활인암이 여성의 소임에 대한 규범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한편, 주소저의 질책

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18세기의 소설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설초벽의 남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대화 장면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설초벽은 천애고아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한 채 지내다 유세창과 만나게 되며, 문무 장원을 한 뒤에는 황제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황제의 주선하에 유세창과 혼인하게 된다. 이러한 소설이 전해지자 유씨 가문의 여성들은 깜짝 놀라며 열협(烈俠)을 며느리 삼기 어렵다거나, 여자에게 육도삼략(六韜三略)이 가당치 않다는 등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유세창의 어머니와 누이들에게서 나온 이러한 말화들은 유세창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를 놀려주려는 성격 또한 질기에, 해당 장면은 그 나름의 화기로운 분위기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방의 괴물’로까지 일컬어지는 설초벽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당사자를 배제한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농담이다. 이때 유씨 가문 여성들은 남자의 행세를 해야만 했던 설초벽의 삶의 곡절을 이해하기보다는 타자화하는 시선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들이 가문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공간에 처해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²⁰⁾

이와 비교하여 본다면 <성현공숙렬기〉 속 활인암은 진세와는 단절되어 있는 탈속적인 공간으로서, 세속의 윤리와 규범이 다소간 무화되는 일종의

에 상운이 침선방적이 아닌 문방서안으로 답하는 대목 역시 일종의 비틀기로 읽힌다. 또한 ‘토풍(土風)이 괴이한 지역’이라는 언사에서 문화의 우열을 나누는 시선이 나타나는 하지만, ‘여성의 소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문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이 제시된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 20) 이후 설초벽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인물들이 인정할 만큼 가문 내에 훌륭하게 적응하지만, 유세창과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유씨 가문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인 문무장원각에 기거하며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설초벽에 대해서는 “당대 체제 ‘밖’에서의 혁신적 여성상”이라는 평가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6쪽 참조. 이러한 사례는 여성인물이 이례적인 삶의 방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공간이 요청됨을 시사하기도 한다.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규범을 근거로 타인을 재단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시선이 약화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주소저가 한소저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추후 주소저 역시 남장한 채 생활하게 되는 데에는 이들이 활인암에 머물고 있다는 환경적 조건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주소저가 활인암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태허도사의 희롱을 매개로 남장 여성 한소저와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서사 내적으로는 주소저의 윤리적 강박을 한층 누그러뜨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한편, 서사 외적으로는 여성의 남장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일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않게끔 독자들을 이끌며 이 문제가 가지는 윤리적 무게를 한결 경량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활인암을 떠난 주소저와 그 일행이 비구니들을 만나며 발생하는 소통에 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을 만큼 청정고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비구니들의 모습은, 한소저 등에 의해 웃음거리가 되며 주소저에 의해서는 비판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 해당 장면에서는 여성인물의 남장을 유희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비구니들의 성적 욕망에 대한 회화화가 이루어진다. 이를 계기로 주소저의 정대함이 강조되고, 주소저와 한소저, 그리고 그녀들의 시비들 간의 친밀감과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 또한 발생하지만, 이것은 비구니라는 집단을 타자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물론 해당 장면 역시 <성현공숙렬기>와 같은 한글장편소설이 당대에 상층 여성을 대상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다. 기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극도의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는바,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여성인물들은 부정적으로 형상화될 뿐 아니라 서사 내에서 강력하게 교정되거나 처벌되곤 한다.²¹⁾ 더욱이 대개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지배이념인 유교 외의 이념

들을 배척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²²⁾ 〈성현공숙렬기〉 속 비구니와 관련된 장면화 역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이념적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장면은 일차적으로는 독자들이 익숙한 윤리적 감수성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설의 서술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장면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거나 불교를 배척하는 등의 강력한 이념적 지향을 설파한다기보다는, 주소저 일행이 함께 겪게 되는 재미있는 일화를 흥미롭게 그려내는 쪽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특히 주소저를 중심으로 앞선 서사를 향유해 온 독자들은, 비구니들이 한눈에 반할 만큼 외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주소저 일행의 시선에 동기화되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쾌락적 독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²⁴⁾ 따라서 해당 장면은 교훈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통속적인 흥미 지향이 극대화된 방식으로 수용되며 독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때의 ‘색다른 재미’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이는 ‘남성인 체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인 체하고 있는 여성에게 매혹된 여성’을 꾸짖는

21)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 소설 속 탕녀연구-『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97~234쪽. ;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韓國古典研究』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쪽.

22)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65~149쪽, 179~199쪽.

23) 비구니를 회화화하는 삽화를 배치하면서도 태허법사를 신이하고도 강력한 존재로 그려낸 것은 〈성현공숙렬기〉의 통속성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흥미로운 서사를 직조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인물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자극적인 에피소드를 삽입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종의 착종으로서, 이념적 지향보다는 대중적 지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4) 주형예, 「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고소설학회, 2010, 391-393쪽.

서사적 아이러니와 관련된다. 기실 고전소설에서는 남성에게 반한 여성이 자신의 연정을 표현하는 화소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여성인물의 적극적 행위가 남성인물과의 혼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데 반해, 한글장편소설에서 그러한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며 끝내 서사에서 축출되기도 한다. 이때 <성현공숙렬기> 속 주소저와 비구니의 대면 장면은, 남장 여성이라는 설정을 개입시키면서 이러한 화소를 비틀어 전유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계율을 깨뜨리며 십 년간의 수행을 수포로 돌릴 결심을 한 비구니들은 자신들이 풍채 좋은 남성들을 향한 연정을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사실 남장 여성들에게 반한 것이다. 남장 여성이라는 장치를 매개로 이 삽화는 여성을 욕망하는 여성들과 여성에 의해 욕망 되는 여성들을 그려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성현공숙렬기>의 해당 장면은,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의 남장이 로맨스적 설정으로 활용되는 양상과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소현성록>이나 <하진양문록> 등에서는 남성에게 이끌리는 남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남장한 여성과 그에 이끌린 남성의 혼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는 동성애라는 급진적 소재의 위험성을 무마하고 이야기를 오락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끔 조정한 결과로서 평가되곤 한다.²⁶⁾

25) 이는 남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월한 남자의 외양으로, 남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남성성을 수행하는 여성인물을 그려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소저의 형상은 젠더와 섹스가 일치되며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민음’의 허약함을 드러내며, 젠더의 본질이란 ‘꾸밈’(수행)에 있음을 지시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韓國古典研究』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07~244쪽.

26) 고은임, 앞의 글, 26쪽. 관련하여 조현우는 버틀러의 논의를 참조하며, ‘성적으로 매혹되면서도 동성애기에 곤혹스러웠던 대상이 알고 보니 이성이었다는 설정’은 동성애를 재현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이성에 규범을 강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논한 바 있다. 조현우, 위의 논문, 220쪽.

이때의 표면적 동성애란 이성애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일종의 구성적 외부로서 동원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성현공숙렬기〉의 해당 장면은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성애이지만, 그 남성이 사실은 남장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지점이 있다. 이때의 성애적 감성은 이성애적 관계에 바탕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승인되거나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소설은 여성이 남장한 여성에게 성애적 감정을 느낀다는 설정을 마련하되, 그러한 감정이 남장 여성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양상을 그려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한바탕의 소동’이라는 진실을 폭로하지 않은 채 해당 장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인 것이다.

물론 소설의 서술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삽화는 여성동성애에 관한 진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삽입되었기보다는, 소설의 흥미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도출된 우연적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찍이 박혜숙은 여성영웅소설은 통속성이 강하여 진정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사상을 운위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의 회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²⁷⁾ 첫째, 통속적 의식과 진정한 의식의 경계는 확연히 구분될 수 없다. 둘째, 통속적 의식이 가지는 피상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계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깃들 수 있다. 셋째, 세계인식의 변화란 반드시 진정한 문제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을 통해 조선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참조한다면, 남장 여성에게 애욕을 느끼는 여성의 형상화와 관련해 서도 좀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규범적 논리로 말끔하게 환원되지 않는 이 ‘통속적인’ 삽화에 관한 다양한 수용 가능성을

27) 박혜숙, 앞의 글, 161쪽.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앞서 논의한 바대로 상층 여성 독자들이 주소저를 중심으로 소설을 향유하였다면, 이는 비구니들의 욕망을 근엄하게 꾸짖고 계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에게 욕망 당하는 여성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주소저와의 동일시를 통해 비구니들에게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에 다름 아닌바, 소설 향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미묘한 경험이 이성에 규범적인 독서 관습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불협화음을 남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독자들이 작품의 의도에 따라 소설을 읽지는 않으며 서술자의 시선에 동조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²⁸⁾ 주소저를 중심으로 소설을 향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독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비구니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 장면을 향유하는 데 실패하거나, 혹은 욕망하는 비구니들을 경유하여 은밀하게 주소저를 탐미하는 방식으로 귀어하게 소설을 향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 인물과 여성 인물, 여성 인물과 여성 독자 사이의 ‘다른 종류의 관계성’을 상상하게끔 하며 단일한 규범적 의미로 통합되지 않는 다양하고 균열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야말로 <성현공숙렬기> 속 비구니 삽화가 진정으로 ‘흥미로운’ 이유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는 <성현공숙렬기>의 실제 독자들의 수용방식을 확인할 실증적인 자료가 부재하는 현 상황에서 확증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다분히 현대적 독자의 관점에서 제기된 시대착오적 해석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 사회의 저변에서 면면히 흐르던 여성 동성애의 흐름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방한림전>과 같은 소설의 형태로서 발아되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

28) 실재하는 독자란 작가의 의도대로만 소설을 읽지는 않으며 때로는 서술전략에 저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을 향유한다. 고전소설과 관련하여서도 독자가 작품의 서술시각에서 벗어나 자기 나름의 주관적이고 독창적이기까지 한 해석과 평가를 제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숙, 앞의 글, 21~32쪽, 142~149쪽 참고.

면,²⁹⁾ 소설사에 남겨진 여러 흔적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성현공숙렬기〉 속 남장여성을 둘러싼 여성들의 시선과 감정, 욕망이 맞물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흥미로운 국면을 단서 삼아, 당대 독자들의 수용방식에 관한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 시도라고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남장 화소를 서사적 기능과 독자 수용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의 흐름을 계승하되, 남장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여성들 간의 관계에 보다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성현공숙렬기〉에서 남장 여성인물과 다른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가 흥미롭게 형상화된다는 데 주목하여, 그 의미와 서사 내외적 효과 등을 특히 여성 독자의 수용과 관련하여 탐구해 보았다.

우선 〈성현공숙렬기〉에서는 여성인물의 남장을 비롯한 탈규범적 행위가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음이 강조된다. 이는 서사 내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남장을 하게 되는 주소저와 한소저 등 여성인물들 간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여성인물에 대하여 독자들이 도덕적 단죄를 유예하고 보다 긴밀하게 연루되게끔 이끈다.

29) <방한립전>에는 성애적 요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방관주의 영혜빙의 관계는 대개 '자기'로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김경미는 매죽당 이씨와 조소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선 사회가 여성 동성애에 취한 태도를 분석하며, 기실 <방한립전> 속 동성혼에는 동성애적 요소가 은폐되어 있음을 논하였다. 김경미, 「젠더 위안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립전〉」, 『韓國古典研究』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이렇듯 여성의 탈규범적 행위와 관련하여 덧씌워질 수 있는 혐의를 최소화하며 주동인물인 주소저를 상층 여성들의 윤리적 감수성과 미적 취향에 부합하게 형상화 해나가는 가운데, 주소저 주변의 여성 시비군의 행위성이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영웅의 행위성을 주변의 여성인물들에게로 분산하여 배분함으로써, 독자들은 윤리적 부담 없이 주소저를 중심으로 서사를 향유해나가면서도 여성 시비군의 과감한 활약이 펼쳐지는 서사를 흥미롭게 쫓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성현공숙렬기>에 남장을 하는 여성인물이 다수 등장하며 그 내부적 유대감이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특히 남장을 둘러싸고 여성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소동들이 유희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바, 이러한 여성들 간의 관계에서는 남장이라는 탈규범적 행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가 한결 가볍게 처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유희적 삽화에서는 남장 여성이라는 장치를 매개로 여성을 욕망하는 여성과 여성에 의해 욕망 당하는 여성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는 강력한 흥미 지향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출된 우연적 결과로 보이나, 다양하고도 균열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상 본고는 남장화소의 흥미성을 여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탐구하면서,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성과 여성 독자들의 수용방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이는 <성현공숙렬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론적 논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소설사적 시각 위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도출한 여러 특징을 그 연작인 <임씨삼대록>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인바, 이와 관련하여 여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현공숙열기> 25권 25책본

- 강우규, 「〈성현공숙열기〉의 악행 서사 고찰」, 『국제어문』 96, 국제어문학회, 2023, 41-67쪽.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91-121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韓國古典研究』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 김문희, 「〈성현공숙열기〉의 임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33-268쪽.
- 김민정, 「〈성현공숙열기〉에 나타난 내·외부 조력자로서의 시비(侍婢)-열영, 상운, 매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0, 239-269쪽.
- 김민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연구 :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김희경전〉,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25, 1-121쪽.
- 김종철, 「성현공숙열기의 인물 형상에 대하여」, 『한국문화』 1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111-133쪽.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繼後葛藤) 의미-〈성현공숙열기(聖賢公淑烈記)〉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187-218쪽.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56-193쪽.
- 이경하, 「〈하진양문록〉의 애정갈등과 여성독자의 자기검열」,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53-383쪽.
- 이지하, 「조선후기 상층가문의 성(性)문화와 ‘연애’의 발견」, 『반교어문연구』 52, 반교어문학회, 2019, 167-199쪽.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

- 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01-338쪽.
- _____,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8-34쪽.
-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韓國古典研究』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쪽.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韓國古典研究』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07-244쪽.
- 주형예, 「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고소설학회, 2010, 379-403쪽.
-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1-210쪽.
-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방한림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1-513쪽.
- 최길용, 「성현공숙렬기 연작의 갈등구조」,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1-541쪽.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잡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1-86쪽.
-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쪽.
-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 소설 속 탕녀연구-『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97-234쪽.
- _____,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6쪽.
- _____, 「국문장편소설과 소설사적 전변 -단편 영웅소설과의 교섭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139-186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 Disguised as Men and Other Women in *Seonghyeongongsukryeolgi*

Jeon, Ki-hwa

This study argues that, with regard to the motif of cross-dressing in classical novel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emale characters in male disguise and other female characters. Accordingly, it examines how these relationships are portrayed in *Seonghyeongongsukryeolgi*, exploring their narrative significance and effect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how this portrayal is received by female readers.

Seonghyeongongsukryeolgi emphasizes that the female character's cross-dressing and other non-conformist behaviors were not driven by her own volition but compelled by circumstance. This emphasis functions as a narrative strategy that not only shields the character from potential ethical censure but also accords with the moral and aesthetic sensibilities of upper-class women, the primary readership of Korean lineage novels.

While the risk of moral censure against the female protagonist is minimized, *Seonghyeongongsukryeolgi* foregrounds the agency of the female characters surrounding her. This aligns with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novel: numerous female characters appear in male disguise, their relationships unfold across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bonds with one another are emphasized. In this context, the novel employs playful episodes that arise among these characters around the secret of cross-dressing to lighten the ethical weight attached to female cross-dressing itself.

In particular, in the episode involving the bhikkhunis, the novel portrays erotic sensibilities that cannot be accommodated within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 marriage, yet it closes the episode without disclosing that these events arise from a series of misunderstandings.

This leaves readers' modes of reception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and it is precisely this openness to diverse and fractured reception, irreducible to a single normative meaning, that makes this episode interesting.

Key Words cross-dressing in classical novels, *Seonghyeongongsukryeolgi*, playful appropriation, female readership, desire, relations between women

논문투고일: 2026.04.12.

심사완료일: 2026.05.12.

게재확정일: 2026.05.17.